

웨딩드레스 색상의 변천과정 연구

이 윤 정[†]

독일 뮌스터대학교 의상직물학과

A Research on the Changes of Wedding Dress' Colors

Yun-Jung Lee[†]

Textilgestaltung, Muenster University, Germany

(2003. 3. 28. 접수 : 2003. 9. 13. 채택)

Abstract

It is quite common today for bride to wear white-colored wedding-dress in wedding ceremony. When does the color date back to? What does the "white" mean? Which other colors had been used for wedding dress and why? This research paper aims to answer those historical questions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found here that the "white" began to be generally accepted for a wedding dress color in the 18th century, and that the color became an official one since the marriage of Queen Victoria's (i.e. 1840). Prior to that, other colors were taken rather than the "white". In ancient Greece and Roma, "Red" and "Yellow" were used to remove devils or to bring fortune. In medieval society, luxurious wedding dresses were popular and various colors were adopted in order to show up family power among leading classes. The "White" has meant purity of bride since the 18th century. However, two world wars in the 20th century happened to lead some brides in economic difficulty wear "black" colored wedding dress for a practical reason. After the world wars, some light colors such as white, beige, ivory are to be used in wedding dress.

Key words: bride(신부), color(색상), history(역사), wedding dress(웨딩드레스).

I. 서 론

오늘날 결혼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이다. 웨딩드레스란 결혼식을 거행할 때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으로 드레스와 베일로 구성된다. 웨딩드레스는 일종의 의식의 복장으로서 결혼이라는 의식이 표현되어야 함과 동

시에 신부의 청초하고 순결함이 상징되어야 한다¹⁾.

오늘날 널리 이용되는 웨딩드레스의 흰색은 순결, 정결, 처녀는 물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기쁨 등을 상징한다²⁾. 즉, 백색의 웨딩드레스는 순결을, 베일은 정결을, 흰색 트레인은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낸다³⁾.

한편 오늘날 일반화된 흰색 웨딩드레스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까지만 하여도 웨딩드

[†] 교신저자 E-mail : yunjlee@msn.com

1) 이미연,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43-44.

2) 李惠子, "ウエディングドレスの歴史," 関西衣生活研究會 11권 5호 (1984), p. 29.

3) 이미연, *Op cit.*, p. 44.

레스는 교회의 관습에 따라 각자의 색상과 무늬를 지나게 되었다. 또한 1900년경 결혼식 사진에서는 검정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당시의 검정색은 지금의 흰색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⁴⁾. 즉, 웨딩드레스의 형태와 색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해 왔다.

그러면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어떤 색들이 언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색상의 변화들 서양 문화의 발상지인 유럽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특히 유럽과 독일에서 발간된 각종 문헌 및 웨딩드레스에 대한 연구논문과 자료를 토대로 웨딩드레스 색상의 변화과정과 각 색상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흰색이 웨딩드레스 색상으로 도입되는 시기와 흰색의 의미를 문헌자료와 사진들을 토대로 살펴본다.

II. 웨딩드레스 색상의 시대별 변천

웨딩드레스의 색상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고대, 중세, 근대, 근세, 현대로 구분하였다.

1. 고대

고대 그리스에서 계약에 의해 신부의 지참금을 결정한 후 결혼 날짜를 잡는 순으로 결혼이 진행되었다. 결혼은 종교적인 영향에 따라 3일 동안 치러졌고 신부는 이를째 되는 날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신부의 드레스는 리넨이나 비단으로 만든 키톤으로 원시적인 처녀를 상징하였다⁵⁾. 특히 키톤에 자수를 놓아 화려하게 표현하였으며, 머리에는 붉은색의 베일을 썼다. 그 당시 붉은색은 악마를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부들은 베일로 붉은색을 사용하였다⁶⁾.

<그림 1>은 그리스 결혼식 장면으로, 신부는 화

려하게 자수를 놓은 페폴로스 또는 키톤을 착용하고 있다. 머리에는 간단한 띠를 매고, 머리에는 베일로 장식한 다음, 베일 위에 담홍색의 5가지 꽃이 꽃힌 상록 소저독 화관을 쓰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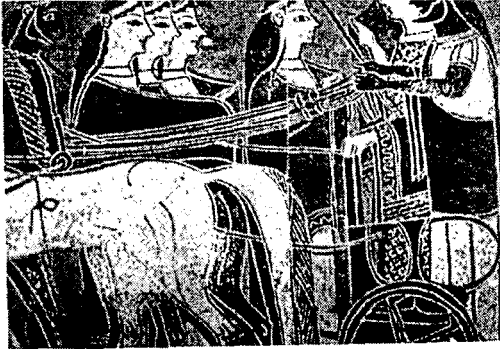
고대 로마의 결혼에는 3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사제에 의해 종교의식이 치러지는 것, 둘째 아버지가 딸을 팔아 결혼시키는 것, 셋째 동거 기간이 일년을 넘으면 자연히 성립된 결혼 등이다. 당시 신부는 원시적인 처녀를 상징하는 흰색의 스펀라를 입었는데, 로마시대의 흰색은 사회적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었다⁸⁾. 또한 녹색에 장식이 없는 스펀라를 입고 머리에는 신랑만이 풀 수 있는 모직 허리띠인 헤라클레스 매듭을 달았다⁹⁾.

고대 로마에서는 결혼 예복으로 웨딩드레스보다는 베일과 거들, 샌들 등이 더 강조되었다. 예컨대 베일을 의미하는 단어 nubere는 결혼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다¹⁰⁾. 또한 행운을 상징하던 노란색이 혼인을 위한 색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의 신인 하이멘(Hymen)에게 바쳐진 노랑 베일과 이와 조화를 이루는 신발을 신었다¹¹⁾. 고대에서의 베일은 결혼식 동안 신랑신부를 매우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¹²⁾.

<그림 2>는 고대 로마의 결혼식 전의 모습이다. 신부는 스펀라 위에 샤프란(saffron)색의 팔라(palla)를 걸쳐 입고 오렌지나 불꽃색 베일을 썼다. 샤프란색은 탄생과 생명의 여신인 베스타의 불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베일은 속이 바치는 얇은 감을 사용하였으며, 베일 위에 오렌지꽃 화관을 쓰고 마지막으로 금속제 목걸이를 하였다. 신은 샌들을 주로 신었고, 신발의 색 또한 금색 혹은 노란색이었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 4) H. Hampe, *Blau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Detmold: Topp und Moeller, 1997), p. 211.
- 5) 윤혜숙, *웨딩드레스 Design & Deco* (서울: (주)삼과 문화, 2000), p. 11.
- 6) M. R. Horn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p. 88.
- 7) 유태순, 김자은, "웨딩드레스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효대논문집* 47권 8호 (1993), p. 329.
- 8) 윤혜숙, *Op cit.*, p. 12.
- 9) 유태순, 김자은 *Op cit.*, p. 330.
- 10) Maria McBride-Mellinger, *The Wedding Dress* (New York: Random House, 1993), p. 14.
- 11) C. Probert, *Bride in Vogue* (New York: Abbeville press Publisher, 1984), p. 7.
- 12) M. von Boehn, *Modespiegel* (Berlin-Braunschweig-Hamburg: Georg Westermann, 1919), p. 103.
- 13) B.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1965), p. 116.



〈그림 1〉 결혼 행진, 그리스 시대, B.C. 540.
(*대세계의 역사*(2), p. 254)



〈그림 2〉 Aldobrand의 결혼, 로마시대.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p. 63)

의 결혼식에서는 전통복식과 더불어 베일을 쓰고, 샌들을 착용하였다. 이 당시에는 웨딩드레스 자체보다는 베일과 샌들의 색상에 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당시 베일에는 오렌지색, 보라색, 흰색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스의 붉은색은 악마를 쫓는 역할을, 로마의 노란색은 행운의 색으로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다.

2. 중 세

중세에는 민족간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로서, 귀족 및 제국들간 세력을 통합하고 분쟁을 줄이는 수단으로 결혼이 이용되었다. 또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교회만이 결혼을 공인했다. 중세의 결혼은 권력과 재력을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이용했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은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결혼식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거행했다¹⁴⁾.

중세의 웨딩드레스에서는 특정색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주로 붉은 색이 많이 이용되었다. 가문의 문장색을 따른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풍요로웠고, 금사, 은사와 보석을 사용한 사치스런 옷감으로 화려하였다. 사치의 정도는 가문의 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랐다¹⁵⁾. 색상은 적색, 녹색, 푸른색 등 다양했는데, 이 시대 흰색은 상복의 색상이었으므로, 붉은색이 결혼식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¹⁶⁾.

신부는 목과 모자에 붉은색 끈을 들었고, 붉은색 리본으로 묶은 머리를 장식하였으며, 붉은 꽃무늬가 있는 천 조각으로 어깨를 덮었으며, 붉은색 깃발로 신부마차를 장식하는 등 거의 모든 부분을 붉은색으로 장식하였다.¹⁷⁾ 즉, 붉은색은 귀족계층의 웨딩드레스 색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농민층에서는 19세기까지 파티복 색상으로 붉은 색을 사용하였다¹⁸⁾.

중세에 베일은 발전과 쇠퇴를 반복한 바 있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베일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이후부터는 유행에 뒤져서 사라지게 되었다. 베일은 중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신랑에게 신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타인과 구획을 짓는 상징적 매개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의 복식사에서 흰색의 베일은 정절의 상징으로서 이용되는 전통이 있었다¹⁹⁾. 13, 14세기경부터 백색의 베일이 유럽에 널리 유행되었는데²⁰⁾, 백일에는 오렌지 꽃의 화관을 쓰는 것이 일반적

14) 윤해숙, *Op cit.*, pp. 16-17.

15) C. Probert, *Op cit.*, p. 7.

16) J. Lehning, Die Entwicklung des weissen Brautkleides, Seminar Heiratsrituale und Textilien im Kulturvergleich, Referat, WS 2000/2001.

17) M. von Boehn, *Op cit.*, p. 104.

18) J. Lehning, *Op cit.*

19) H. Nixdorff and H. Mueller, *Weisse Westen - Rote Roben. von den Farbordnungen des Mittelalters zum individuellen Farbgeschmack* (Berlin: 1983), p. 93.

20) 현선진, "Wedding Dress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 66.

이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부분을 모두 덮지 않고, 머리카락을 보이게 했고, 프랑스 전통의 영향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오렌지 꽃을 같이 들었다²¹⁾. 그러나 재혼이거나 임신을 한 경우에는 흰 베일과 오렌지 꽃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중세에 착용된 웨딩드레스의 예는 다음의 여러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종교적인 영향으로 신체를 대체로 감추던 시기였다²²⁾. <그림 3>은 1470년 “혼약”의 그림으로, 신부는 팔꿈치에 적색의 코뜨를 착용하고 있다²³⁾. 1493년 Bianca Marie Sfoza 인스부르그에 있는 Maxmilian 황제와의 결혼식 그림에는 금과 진보석으로 장식한 심홍색의 공단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19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유행하였다²⁴⁾. <그림 4>의 “성 Edward 역사”(13세기)에는 영국의 애드워드 왕과 고드윈 백작 딸의 결혼식 장면에서, 신부는 넓은 소매에 백합무늬의 자수가 놓인 파랑색 코뜨(cotte)에 적색 안감을 댄 심록색 망토를 걸쳤으며, 머리는 베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중세의 웨딩드레스에는 다양한 색채가 화려하게 사용되고 특히 붉은 계통이 많이 사용되었다. 당시 흰색은 상복의 색상이었으므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중세에 웨딩드레스에 흰색이 사용된

예로서, 1405년 덴마크의 왕 에리크와 결혼한 영국의 헨리 3세의 딸 필립페 공주의 웨딩드레스가 있다. 여기에는 흰색의 벨벳으로 만들어진 튜닉과 맨틀에 흰색 새틴으로 만들어진 긴 트레인이 달려있다. 이는 상복용 의상에 쓰였던 흰색이 중세의 결혼 복식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²⁵⁾.

3. 근 세

근세에서도 중세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의견보다 가문과 왕족간의 이익에 따라 결혼이 진행되었다. 왕족 간 결혼은 국가간 정치적 통합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전통의 교류를 이루는 큰 행사로서 매우 화려하게 치러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귀족들도 왕족의 복식을 따라 하는 경향이 많았다²⁶⁾.

1) 르네상스시대

르네상스 초기까지 중세의 영향을 이어받아 유럽의 신부들에게 붉은 색 계통을 중심으로 유채색의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문헌상 발견된 르네상스 초기 유색 웨딩드레스의 예로 1502년 Lucrezia Borgia의 웨딩드레스에는 금실이 들어간 직물에 모피로 안감을 댄 보라색의 공단으로 만든 망토를 입고



<그림 3> 혼약, 1470년.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p. 119)



<그림 4> 성 Edward 역사, 1290년경.

(13세기 패션의 역사 (1), p. 100)

21) E. B. Hurlock,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 New York Times Co., 1976), p. 75.

22) 김창준, *패션의 역사 I*. (서울: 라사라, 1992), p. 100.

23) ウェディングドレスの歴史(4), 關西衣生活研究會, 11권 8호 (1984), p. 22.

24) A. von, Rohr & A. Fahl, *Lebenslauf- Lebensfeste; Geburt, Heirat, Tod* (Hannover: Historisches Museum, 1994), p. 81.

25) 윤혜숙, *Op cit.*, p. 17.

26) Maria McBride-Mellinger, *Op cit.*, pp. 20-21.

있다²⁷⁾. 1568년 문헌에서 Reneta von Lothringen 공주의 웨딩드레스는 푸른색과 은사와 금사로 수 놓여진 브로케이드로 만든 드레스였다²⁸⁾.

16세기 말에는 검정색이 지배적인 스페인의 의복이 유행하게 됨에 따라 웨딩드레스에서 유채색은 줄어들게 되었다²⁹⁾. 따라서 웨딩드레스는 붉은색 비단 속옷치마 등과 함께, 다마스트나 검정색 비단으로 만들어졌다³⁰⁾. 신랑의복 또한 스페인 모드의 영향을 받아 붉은색 혹은 검정색을 입었다. 이 당시 문헌에 밝혀진 웨딩드레스의 색상의 예로는, 1581년에 Hans von Schweinichen의 결혼식에서, 은사레이스와 함께 초록색 실크공단으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찾을 수 있다. 1601년 Anton Moeller Danziger의 여성복에 관한 책(1601)에 의하면, 검정색 배일을 쓰고 자주색 망토를 두른 신부에 대한 언급이 있다³¹⁾.

이 시기에 웨딩드레스의 흰색은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수의 신부들에게만 입혀졌다. 즉, 이 때 흰색은 신부의 색이 아니라 상징성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³²⁾. 몇 개의 예를 살펴보면, 16세기말 즉, 1581년 프랑스에서 그려진 “조이스 공작의 무도장(the ball of Duke of Joyeuse)”의 그림에서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보이며,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는 과장된 hourglass silhouette이며, 소매는 패드를 넣어 과장되게 부풀렸다(그림 5)³³⁾.

1558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2세와 스코틀랜드의 왕녀 메리 스튜어트의 결혼식에도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유한 귀족층 신부들도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기 시작하여 18세기말까지 귀족층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흰색이 선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16세기말부터 흰색은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³⁴⁾.

1600년에 피렌체에서 행해진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치의 결혼식장면(그림 6)에서 신부인 마리의 웨딩드레스는 광택 있는 흰 로브(robe)였다. 신부의 흰색 웨딩드레스는 순결한 젊은 처녀를 상징하였다³⁵⁾.



〈그림 5〉 Joyeuse 공작의 결혼무도회, 1581년.
(부석문화사, p.136)



〈그림 6〉 Marie de Medicis의 결혼식, 1600년.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p. 119)

27) M. von Boehn, *Op cit.*, p. 105.

28) A. von, Rohr and A. Fahl, *Op cit.*, p. 81.

29) 김창준, *Op cit.*, p. 100.

30) J. Lehning, *Op cit.*

31) A. von, Rohr and A. Fahl, *Op cit.*, p. 81.

32) 김성복, “19세기 서구 웨딩 드레스의 역사적 고찰,”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5), p. 495.

33) 정홍숙, *부석문화사* (서울:교문사, 1986), p. 136.

34) 윤혜숙, *Op cit.*, p. 20.

35) ウエティンクドレスの歴史(4), *Op cit.*, p. 26.

2) 바로크시대

르네상스를 지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청교도 혁명과 함께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의상이 중엽까지 발전되면서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렀다.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전통도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왕족과 귀족의 화려함은 여전했다.

17세기 중반(1650년경) Regensberger 지방의 한 그림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의 복식의 영향으로 담록색의 속치마와 담홍색의 실크모아레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붉은색 실크와 금사의 무늬가 있는 스타킹과 붉은색 실크와 금색으로 수놓여진 흰색의 신발을 신고 있다. 이 무렵 귀족층에서는 밝고, 연한 색상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³⁶⁾. 그러나 “뉴른베르그 민속복의 소개(Vorstellung der Nuernbergischen Trachten”(1766)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신부들은 황금색의 실크레이스로 된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를 회화적으로 재현하면서 채색화할 때, 거의 어두운 색채를 띤 웨딩드레스로 묘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결혼식의 장엄함이 이러한 검정색 계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17세기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웨딩드레스로서 붉은색 속치마 위에 검정색 벨벳이 통용되었다. 즉, 독일에서는 17세기부터 신부의 옷 색상으로 검은색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전통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³⁷⁾. Thuringen 지방에서는 1920년대까지도 결혼식 예복으로 서민계급들은 검정색 실크로 만든 것을 입었다³⁸⁾.

16세기에 유행했던 스페인 모드는 바로크 시대에도 여전히 귀족과 일반대중의 복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20세기까지도 유지되었다. <그림 7>은 1730년경 서민계급인 아우스부르크 신부의 웨딩드레스로 스페인의 접시모양의 falling collar가 특징인 웨딩드레스의 모습이다. 1730년경의 웨딩드레스에 관한 H. Doge의 기록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도 스페인 모드를 많이 받아들여, 화려하

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Stettner라는 여성의 웨딩드레스는 청록색의 속치마와 복숭아색의 실크모아레 드레스에 전체가 금사로 수 놓여져 있으며, 살색 실크로 만들어진 코르셋과 하나는 흰색의 실크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붉은색 모아레로 만들어진 이중 소매로 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³⁹⁾.

바로크시대의 흰색 웨딩드레스에 관한 기록으로, 1613년 영국 Jakobs왕의 딸 Elisabeth가 Friedrich공과 결혼할 때 은사 진주로 수를 놓은 은색 브로케이드로 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독일 문헌에서 1614년 Maximilian공작의 여동생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 모두 흰색을 입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⁴⁰⁾. 이 당시 서민층에서는 어두운 색채가 유행하였는데, 유행을 선도하는 신부들이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1658년 Sophie공주(독일 Winterkoenig의 딸)의 결혼식에서도 긴 베일과 큰 다이아몬드로 만든 왕관을 쓰고,



<그림 7> 아우스부르크의 신부, 1730년.

(Modespiegel, p. 107)

36) A. von, Rohr and A. Fahl, *Op cit.*, pp. 82-83.

37) W. Kleinschmidt, "Zur Innovation des weissen Brautkleides in kleinen sozialen Systemen," *RhWZfV* 23, (1977), p. 87.

38) M. von Boehn, *Op cit.*, p. 106.

39) *Ibid.*, p. 107.

40) A. von, Rohr and A. Fahl, *Op cit.*, pp. 82-83.

은색 브로케이드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것은 매우 사치스러웠다고 한다⁴¹⁾.

3) 로코코 시대

로코코 시대는 복식의 화려함이 극치에 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도 역시 사치스러웠다. 18세기 웨딩드레스에 주로 쓰였던 색상은 흰색, 은색, 파랑색이었다⁴²⁾. 여기서 파랑색은 정절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1765년 사라갠슨(Sarah Gamson)의 드레스는 흰색 줄무늬와 꽃무늬의 파랑색 실크 브로케이드로 만들어졌다(그림 8)⁴³⁾. (그림 9) "Galerie des Modes"에 의하면 1780년경에 웨딩드레스는 밝은 청색 실크였다.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우아함은 당시 파리에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신랑, 신부와 모든 손님들은 은사로 수가 놓인 보라색 실크를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 후 독일에서 거행된 결혼식에서 보면 붉은색 실크(은꽃 같은 분위기를 내는)도 보이며, 1776년 Baron Oberkirch의 결혼식에서도 밝은 파랑색 실크에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을 입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⁴⁾.

로코코 시대 흰색 웨딩드레스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와 결혼한 마리 테레사는 금사로 수를 놓은 흰색의 로브를 입었으며, 레이스로 소매를 풍성하게 장식하였다. 거기에 흰색 모피로 장식된 긴 녹색 망토를 걸쳤는데, 프랑스 왕가의 상징인 백합 무늬를 수놓았다. 1751년 Voss의 결혼식에서도 은색 꽃이 달린 흰색의 모아레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루이 12세의 부인인 앤 여왕이 웨딩드레스로 흰색의 새틴을 선택함으로써 흰색에 관한 개념을 변화시켰다⁴⁵⁾. 즉 상복의 색인 흰색을 앤 여왕 이후에는 혼례복으로서 인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⁴⁶⁾. 또한 나폴레옹 황제의 부인 조세핀 왕비의 드레스에서도 흰색의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와 흰색의 베일을 발견할 수 있다⁴⁷⁾. 이 당시 흰색 웨딩드레스는 새

로운 신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신부가 부를 가진 가문의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림 8〉 사라갠슨 드레스, 1765년.
(19세기 서구 웨딩드레스의 *Modespiegel*, p. 109)



〈그림 9〉 청색 드레스, 1778년.
(*Modespiegel*, p. 109)

41) M. von Boehn, *Op cit.*, p. 108.

42) D.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Books, 1986), pp. 438-440.

43) 김성복, *Op cit.*, p. 495.

44) M. von Boehn, *Op cit.*, p. 109.

45) 박순길, 정현숙, *복식의 심리학* (서울:경춘사, 1990), p. 98.

46) E. B. Hurlock, *Op cit.*, p. 75.

47) A. Prinz von Bayern and E. Beauharnais, *Der Stiefsohn Napoleon* (Berlin: 1940), p. 17.

한편 독일에서는 18세기에 흰색웨딩드레스의 흔적이 영주의 궁성에서 발견되었다. 독일에서는 1751년 Sophie von Pannewitz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1000탈레(은화이름)나 소요되는 은색꽃무늬가 있는 흰색 모아레를 입었다. 10년 후 Frt. von Alvensleben도 흰색 실크를 입었으며, Barbara Krasinska도 (1759) 전체가 은으로 수 놓여진 모아레 줄무늬의 흰색 공단을 입었다. 또한 1813년 흰색 웨딩드레스의 패션 그림이 "Journal des Dames"에서 발견되었다. Boehn에 의하면 이 흰색 웨딩드레스는 "전형적인 독일의 것"으로 밝히고 있다⁴⁸⁾.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검정색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Herzog von Luynes의 일기장에 의하면, 당시 프랑스의 결혼식에서는 검정색 바탕에 금색 브로케이트를 입는 것이 에티켓이었다.

흰색이 순결함을 의미하는 상징색으로서 웨딩드레스에 사용되는 오늘날의 전통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18세기이다. Cunnington은 "웨딩드레스에서 흰색이 '순결의 상징'으로 일반화된 것은 18세기 중엽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⁴⁹⁾. 18세기에 흰색 웨딩드레스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이 비싼 직물들을 선택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흰색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둘째, 18세기 중반부터 확산된 고대(그리스 민주주의)문화에 대한 향수 때문으로 흰색의 고대 조각에서 미적인 이상형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흰색은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것 뿐 만 아니라 순수함과 신부가 숙녀임을 의미했다⁵⁰⁾.

Yarwood도 흰색이 18세기부터 웨딩드레스의 색으로 정착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Boehn과 같은 이유로 1738년 폼페이와 헤라클리눔의 발굴 때 출토된 로마시대의 조각상들의 색에 따라 흰색이 모드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8세기 중반 이후, 귀족과 왕족이 흰색이나 은색의

드레스를 많이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¹⁾.

Javis에 의하면 프랑스혁명(1789년) 이후 전 유럽에 유행한 그리스풍의 민주주의와 신고전주의가 만연하여, 흰색의 드레스가 공식 행사에 일반적으로 입혀졌다고 한다. 즉 고전주의의 영향으로 웨딩드레스의 흰색으로의 전환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일반적인 취향과 일치되어 갔다는 것이다⁵²⁾. 이러한 흰색 드레스는 1820년대와 1830년대의 낭만적인 시인과 소설가들에 의해 처녀성과 성서적 순결함의 상징으로 사용이 더욱 확대되었다⁵³⁾.

4. 근대

근대는 결혼이 가문간의 이익을 위한 결합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전통에서 탈피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한 로맨틱한 의미로 변화한 시대이다. 근세에는 순결의 상징으로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일반화되었지만 베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흰색의 베일이 다시 부활되었다.

이런 결혼개념의 변화를 주도한 사람은 영국 여왕 빅토리아였다. 권력유지 및 관리를 주목적으로 결혼한 다른 왕족과는 달리 빅토리아 여왕은 사촌인 알버트와 사랑을 위한 결혼을 한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1840년 결혼식에서 우아함을 강조한 심플한 흰색 새틴드레스를 입었고, 레이스의 베일을 머리에 썼다. 즉, 빅토리아 여왕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음으로써 흰색은 웨딩드레스의 색으로 공인(왕족이 승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10).

이 무렵 서민층에서도 흰색 웨딩드레스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11>은 1836년 Lippe(독일 라인강 지역)지역에서의 결혼식 장면으로, 신부는 흰색의 실크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 당시 무늬가 있고, 색상이 있는 직물로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주목을 끄는 것이었다⁵⁴⁾. 19세기 초 흰 베일은 흰 드

48) M. von Boehn, *Op cit.*, p. 109.

49) P. Cunnington, *Coustume for Birthes, Marriages & Death*, (London: Adams & Charles Black, 1972), p. 60.

50) M. von Boehn, *Op cit.*, p. 110.

51) D. Yarwood, *Op cit.*, p. 438.

52) A. von, Rohr and A. Fahl, *Op cit.*, p. 86.

53) A. Javis, *Brides, Wedding Clothes and Customs 1850- 1980*, (Merseyide Country Museums, 1981),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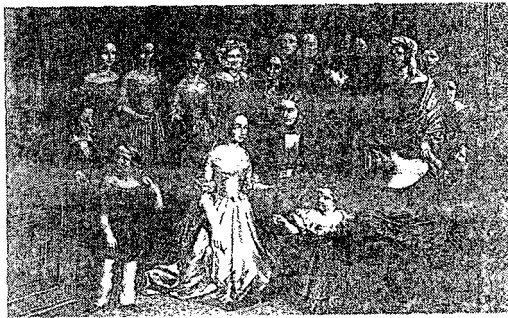
54) I. Weber-Kellermann, *Saure Wochen- Frohe Feste, Fest und Alltag in der Sprache der Braueche*, (Muenchen/ Luzern, 1985), p. 144.



〈그림 10〉 빅토리아 여왕의 웨딩드레스.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p. 233)

레스와 함께 사용되어 오늘날 흰 베일은 신부복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⁵⁵⁾.

또한 독일에 있는 많은 귀족 계층의 여성들도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바이에른의 Marie여왕(1842), Friedrich여왕(1858)(오렌지색 부케를 들고 있음), 빌헬름 2세의 부인인 Augusta Victoria공주(1881), 하인리히 왕자의 부인인 헤센



〈그림 11〉 Lippe지방의 서민 결혼식, 1836년.
(Braut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p.218)

의 Irene공주(1888)도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⁵⁶⁾. 또한 스페인의 Eugenie de Montijo도 이에 해당한다⁵⁷⁾.

이처럼 근대의 결혼은 귀족과 서민계층 모두에서 흰색 웨딩드레스와 베일의 정착과 같은 외형적인 완성과 더불어 결혼 개념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현대로 이어졌다.

한편 근대에는 흰색의 웨딩드레스와 더불어 그 당시에 사정에 따라 다른 색상의 웨딩드레스도 착용하기도 했다. 즉, 자신이 눈에 띄기 싫어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는 등 실용성을 고려한 다채로운 색상의 웨딩드레스가 이용되기도 하였다⁵⁸⁾. 1875년 〈그림 12〉에 빅토리아 여왕은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던 결과,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가 복식계에 영향을 주어, 검은 웨딩드레스를 입는 신부도 등장하였다⁵⁹⁾.

1890년에 발간된 잡지, "The Ladies' Home Journal"에 의하면, 재혼을 하는 신부의 경우에는 흰색 웨딩드레스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옅은 회색이나 보라색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⁶⁰⁾. 예를 들어 〈그림



〈그림 12〉 빅토리아 여왕의 드레스, 1875년
(Evolution of Fashion, No. 27)

55) M. R. Horn and L. M. Gurel, *Op cit.*, pp. 295-296.

56) F. Humann, *Das deutsche Familienalbum*, (Wien-Muenchen-Zuerich, 1972), pp. 264-265.

57) M. von Boehn, *Op cit.*,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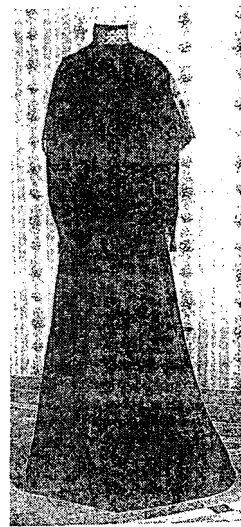
58) 윤혜숙, *Op cit.*, p. 23.

59) 유태순, 김자은, *Op cit.*, pp. 342-343.

60) D. H. Felger, *Bridal Fashions Victorian Era*. (Maryland: Hobby House Press, 1986), p. 21.



〈그림 13〉 메리 브라운 필드의 드레스, 1842년.
(19세기 서구 웨딩드레스의 역사적 고찰, p. 507)



〈그림 14〉 중산층의 검정 웨딩드레스, 1893년.
(*Braut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p. 214)

13) 1842년 메리 브라운 필드(Mary Brownfield)의 웨딩드레스는 꽃무늬가 있는 흰색 실크로 만들어졌다.

19세기말경에 독일 시골사람들은 검정색 웨딩드레스를 선택하였다. 1880년 "Miles Freundin"책에서, 농부의 결혼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때 신부는 베일을 쓰지 않고, 검정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베일 대신에 긴 덩굴이 달린 초록색 화관을 쓰고 있었다고 하였다⁶¹⁾.

〈그림 14〉는 1893년 독일의 한 중산층 결혼식인데, 그 당시 중산층 이상의 신부가 착용한 전형적인 웨딩드레스의 색상은 검정색이며, 두 부분으로 나뉜 실크 원피스였다. 즉, 목까지 가리고 있으며, 몸통 부분은 몸에 달라붙으며, 팔에 꼭 맞는 소매와 드레스길이는 바닥에 닿는 길이었다⁶²⁾.

5. 현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 웨딩드레스의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여 웨딩드레스의 색으로 거의 일반화 되

었다.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다른 색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⁶³⁾.

그러나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1914~1918) 웨딩드레스의 색상은 다양했는데, 소수시민과 농촌여성들은 검정색의 웨딩드레스를 흰색 베일과 함께 착용하였다⁶⁴⁾. 이 기간 동안 웨딩드레스는 단순함과 실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여성해방운동과 더불어 "속박되지 않는 여성"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허리와 가슴을 강조하지 않는 웨딩드레스는 넓고 짧은 스타일이었다. 예컨대 코코샤넬은 무릎길이의 짧은 웨딩드레스를 공식 도입했다⁶⁵⁾.

1920년대 신부는 어떤 색상이든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브닝 가운을 웨딩드레스 대신 착용하였는데, 그 색상은 흰색뿐만 아니라, 분홍색, 노랑색, 푸른색, 또는 녹색인 경우도 많았으며 결혼식이 끝나면 그 옷은 파티복으로 입기도 하였다⁶⁶⁾. 그 예로 〈그림 15〉는 Pauline Wiebusch가 입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61) L. Koppen, *Kinderleben in einer kleinen Resedenz* (Berlin, 1922), p. 119.

62) H. Hampe, *Op cit.*, p.213.

63) 김성복, *Op cit.*, p. 497.

64) J. Lehning, *Op cit.*,

65) M. McBride-Mellinger, *Op cit.*, p. 32.

66) 김자은, "웨딩드레스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5.

볼 수 있다. 이 시기 웨딩드레스의 색상의 변화는 또한 스타킹과 신발의 색상도 변화시켰다. 독일에서 웨딩드레스의 색이 흰색으로 서민계층까지 정착된 시기는 약 1925년과 1930년 사이였다.

1930년대에는 로맨틱하고, 향수적인 웨딩드레스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가는 허리와 넓은 스커트, 부드러운 작물이 특징적이다⁶⁷⁾. 따라서 이 시기의 웨딩드레스 색채의 다양성은 줄어들게 되었다. 베일도 20년대에 얼굴을 가리는데 비해 30년대에는 이마를 덮는 정도이다. 화관도 매우 장식적이었다. 이 시대는 우아함이 특징이었다(그림 16)⁶⁸⁾.

2차 세계대전까지 웨딩드레스의 색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검정색과 흰색의 두 가지를 동시에 착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Anna Schroeder의 경우 자신의 어머니는(1919) 검정색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며, 나중에는 베일과 화관을 빼고, 각종 행사에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나 그녀 자신(1944년)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

20세기 전반기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흰색은 감정적으로 긍정적이며, 도덕적, 종교적이며, 결혼식에서는 낭만적인 소녀 같은 느낌을 가지나, 반면 검정색

은 감정적으로 실질적, 중립적, 절약적이며, 슬픔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가 웨딩드레스의 색을 검정 계통에서 흰색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따라서 검정색의 예복은 일반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때 입게 되었으며, 흰색은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초기에 흰색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후에 다른 모임에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의 경우 직물 부족으로 인해 웨딩드레스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었다. 1940년대에서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신부들의 이상과는 달리 물자 공급의 문제 때문에 원하는 웨딩드레스를 얻을 수 없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의상 구입 카드가 있어야만 직물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색상에 대해서보다는 직물을 구입하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1944년 <그림 17>에서 Schoetmer에서 Broeker의 결혼식에서 보인 웨딩드레스는 흰색으로 수 놓인 장미빛 색상의 면으로 만들어진 긴 드레스였다.

전쟁 후 웨딩드레스는 물물교환거래에서도 준비하였다⁶⁹⁾. 즉,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 웨딩드레스와



<그림 15> Wiebusch의 웨딩드레스, 1925년.
(Braut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p.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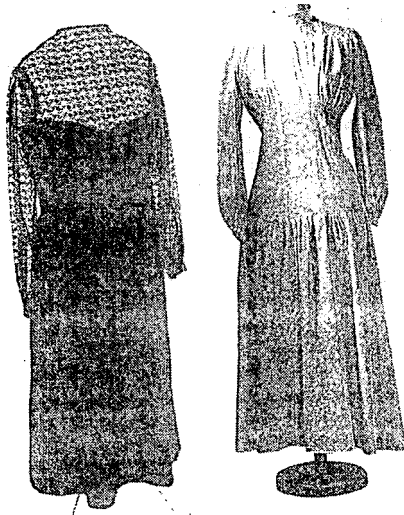


<그림 16> Detmold에서의 결혼식, 1935년.
(Braut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p. 219)

67) G. Reineking von Bock, 200 Jahre Mode. Kleider vom Rokoko bis heute (Köln, 1991), p. 148.

68) H. Hampe, Op cit., p. 219.

69) A. Schaeferstoens, Trauerweide und Eichenlaub (Gifhorn, 1987), p. 285.



<그림 17> 검정색 드레스 (1944)

<그림 18> 장미빛 드레스 (1944)

Braut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p. 220.

베일을 교환했다. 한 예로 1948년 Detmold 지역에서 Spork의 한 결혼식에서 Meinert는 흰색 웨딩드레스와 흰색 구두와 흰색 스타킹 모두를 빌어 결혼식을 행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몹시 궁핍한 시기였으므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고자 하는 희망이 몹시 강했다. 부모들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딸에게 입히는 것은 그 딸이 나무랄 곳이 없는 자신의 자식임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즉 1951년 무렵 흰색은 결혼 전 순결함을 증명하는 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 중 혹은 그 이후로는 순결함에 대한 의미가 퇴색하여, 임신을 하더라도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1940년대 전쟁 중 물자부족을 인해 간혹 검정색 웨딩드레스를 입기도 하였다. (그림 18) 또한 전쟁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검정색 웨딩드레스를 입기도 하였다. 즉, 전쟁은 검정색 웨딩드레스로부터 흰색의 웨딩드레스로의 전환을 늦추는 계기가 되었다⁷⁰⁾.

이와 같이 현대 웨딩드레스는 색상이 보다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양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검정색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아이보리, 흰색, 부드러운

러운 크림색, 베이지색 계통 등을 사용하였다. '80년대 후반 '9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화려한 드레스에서 탈피해 어깨를 과감하게 노출시키거나 가슴을 판 색시한 스타일로 바뀌면서, 색상 또한 흰색과 아이보리색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황금색, 분홍색, 푸른색 등이 액센트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어 흰색을 고집하기 보다는 신부의 개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⁷¹⁾. 또한 진주, 레이스, 비딩 등으로 장식하며, 고급 소재를 사용해 흰색을 돋보이게 하였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색상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그 색상의 시대적 의미를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즉, 어떤 색상이 어떤 의미로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사용되었는지 각 시대별로 고찰해 보았다. 여기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악령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붉은색이, 로마에서는 행운의 색인 노랑색이 사용되었다. 한편 중세에는 결혼이 권력과 재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는 각자의 세력 과시를 위해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다양한 색상이 화려하게 이용되었는데, 그 중 특히 붉은색이 널리 이용되었다.

근세 특히 르네상스 초기에는 중세의 영향을 이어받아 붉은 색 등 유채색계통이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유행되었다. 16세기말 검정색이 지배적이던 스페인 모드의 영향으로 검정색 계통이 웨딩드레스에 주로 사용되었고, 당시 신분과 부를 상징하던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일부 귀족들만 입기 시작하였다. 실용성과 활동성이 강조된 바로크시대에는 르네상스시대의 전통이 이어져 유채색 계통과 검정색 계통의 어두운 색이 서민층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서민들의 어두운 색상과는 달리 귀족층에서는 흰색계통에 보석류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 해 주었다. 로코코시대 역시 복식의 화려함이 극치에 달한 시기로서 귀족들의 웨딩드레스는 매우 화려했으나 한편 고급

70) H. Hampe, *Op cit.*, pp. 220-221.

71) 김민숙,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15.

적물을 선택할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은 흰색을 웨딩드레스 색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로코코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복식에 대한 향수로 인해 흰색이 신부의 순결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최초로 인식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 영국 빅토리아 여왕 등에 의해 새로운 결혼 개념이 등장하고 근세에 이용이 중단된 베일도 부활하면서 흰색은 웨딩드레스는 물론 베일의 공식 색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1840년 결혼 후 많은 귀족과 왕족의 결혼식에서 흰색 웨딩드레스를 널리 사용했고, 그 후 서민층에서도 흰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웨딩드레스의 색으로 거의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 겪으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때로는 검정색 웨딩드레스도 입혀지기도 했다. 전쟁 이후에는 흰색, 베이지색, 아이보리색 등 흰색 계통의 밝은 색이 웨딩드레스를 나타내는 상징색으로 사용되어 21세기인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르네상스 초기에 일부 귀족들 사이에서 입혀진 바 있고, 서민계층에서는 로코코시대에 일부 채택되었고, 본격적으로 귀족 및 서민층에서 흰색 웨딩드레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1840년 결혼식 이후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웨딩드레스의 색상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종교와 문화에 따라 변화해왔다. 즉, 결혼방식 및 결혼의 갖는 종교적/사회적 의미에 따라 특정한 색상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웨딩드레스의 일반적 색상으로 수용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악령을 쫓거나 가문의 풍요 또는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하거나 또는 실용적 이유에서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여러 색상이 이용되었다. 따라서 웨딩드레스의 색상은 사회, 경제, 문화적 산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민숙 (1990).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복 (1995). "19세기 서구 웨딩드레스의 역사적 고찰." *한성대학교 논문집*.
- 김자은 (1993). "웨딩드레스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준 (1992). *패션의 역사 1*. 서울: 라사라.
- 박순길, 정현숙 (1990). *복식의 심리학*. 서울: 경춘사.
- 유태순, 김자은 (1993). "웨딩드레스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효대논문집*, 47.
- 윤혜숙 (2000). *웨딩드레스 Design & Deco*. 서울: (주) 삶과 문화.
- 이미연 (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86).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현선진 (1996). "Wedding Dress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unnington, P. (1972). *Costume for Births, Marriages & Death*. London: Adams & Charles Black.
- Felger, D. H. (1986). *Bridal Fashions Victorian Era*, Maryland: Hobby House Press.
- Hampe, H. (1997). *Blaukleid bleibt nicht Brautkleid*. Detmold: Topp und Moeller.
- Horn, M. R. and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 Hurlock, E. 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 New York Times Co.
- Humann, F. (1972). *Das deutsche Familienalbum*. Wien/Muenchen-Zuerich.
- Jacks, G. (1980). "Brautkleidung in Hamburg. Ueberblick und Arbeitsbericht." *Beitraege zur deutschen Volks- und Altertumskunde*, Bd. 19.
- Javis, A. (1981). *Brides. Wedding Clothes and Customs 1850-1980*, Merseyide Country Museums.
- Kleinschmidt, W. (1977). "Zur Innovation des weissen Brautkleides in kleinen sozialen Systemen." *RhWZf-Vk* 23.
- Koppen, L. (1922). *Kinderleben in einer kleinen Residenz*. Berlin.
- Lehning, J. (2001). Die Entwicklung des weissen Brautkleides, Seminar Heiratsrituale und Textilien im Kulturvergleich, Referat, WS 2000/2001.

- Maria McBride-Mellinger (1993). *The Wedding Dress*. New York: Random House.
- Nixdorff, H. and Mueller, H. (1983). *Weisse Westen - Rote Roben. von den Farbordnungen des Mittelalters zum individuellen Farbgeschmack*. Berlin.
- Payne, B.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 Bayern A. Prinz von and Beauharnais, E. (1940). *Der Stiefsohn Napoleon*. Berlin.
- Probert, C. (1994). *Bride in Vogue*. New York: Abberville press Publisher.
- Bock, G. Reineking von (1991). *200 Jahre Mode. - Kleider vom Rokoko bis heute-*. Koeln,
- Rohr, A. von and Fahl A. (1994). *Lebenslauf- Lebensfeste: Geburt, Heirat, Tod*. Hannover: Historisches Museum.
- Schaeferstoens, A. (1987). *Trauerweide und Eichenlaub*. Gifham.
- Schmidt, L. (1976). *Hochzeitsbrauch im Wandel der Gegenwart*. Wien: Verlag Der oe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Weber-Kellermann, I. (1985). *Saure Wochen- Frohe Feste, Fest und Alltag in der Sprache der Braueche*. Muenchen/Luzern.
- Yarwood, D. (1986).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Books.
- ウエディング・ドレスの 歴史 (4). (1994). 關西:衣生活研究會. 11권 8호.
- 李惠子 (1984). "ウエディング・ドレスの 歴史." 關西:衣生活研究會. 11권 5호.